

전주 촬영 영화 관심 집중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 스틸 사진 등 전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들과 촬영장소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주는 영화의 도시답게 1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영화촬영이 이뤄져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풍성하다.

그 중 대표적인 장소는 해마다 50여편에 이르는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꼽을 수 있다.

27일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안재홍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영작 '위대한 소원'(감독 남대중)을 비롯해 '은밀하게 위대하게'(감독 장철수/주연 김수현), '늑대소년'(감독 조성희/주연 송중기·이보영)

도 전주에서 영화촬영이 이뤄졌다.

또 △관상(감독 한재립/주연 송강호·이정재) △군도(감독 윤종빈/주연 하정우·강동원) △역린(감독 이재규/주연 현빈·한지민) △대호(감독 박훈정/주연 최민식) 등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JI 스튜디오, J2 스튜디오, 야외촬영장 등 촬영시설 및 촬영장비 등을 갖춘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는 현재 김남길·천우희 주연의 '마이엔젤' 촬영을 위해 계약을 마치고 세트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야외촬영센터는 유명 감독과 배우들의 핸드프린팅 작품은 물론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된 영

화의 스틸 사진과 영화소품 등을 전시,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1000만 관객을 모은 '광해, 왕이 된 남자'(감독 추창민/주연 이병헌·한효주)와 영화 '역린'도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에서 촬영을 마친 작품으로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향교 또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고즈넉한 선비의 기운을 느끼는 곳이다. 한옥마을 주변 영화촬영지로는 수많은 영화들이 촬영했던 전통성당도 빼놓을 수 없는 촬영명소다.

지난해 개봉한 장혁·신하균 주연의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혁)가 촬영된 송천동 건지산 학술림은 전주가

남은 고(故) 최명희 작가의 묘가 있는 혼불 문학공원과 조경단, 덕진공원으로 되돌아가는 천년고도 전주의 옛길을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전주 구도심 지역도 영화촬영 명소로 손색이 없다. 황정민·이요원 주연의 '전설의 주먹'(감독 강우석)은 다가동 관광호텔 근처 '수빈이네 장터국수'의 모습을 필름에 담아냈다.

전주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전주는 국제영화제 개최지이자 최근 수많은 영화들이 촬영되는 장소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와 영화 명소 알리기를 통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기기에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즐거운 영화여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김승수 전주시장이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 전주시 고사동 옥토CGV주차장과 영화의 거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 전주국제영화제 최종 현장점검

영화의거리 등 행사장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비해 개막식이 열리는 옥토CGV주차장과 영화의거리 일대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영화제 개막을 하루 앞둔 27일 전주 영화의거리에서 개막식 공연 시설 및 콘텐츠 상태 점검을 시작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쾌적하고 사고 없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올해는 개·폐막식을 비롯한

주요행사과 영화상영, 이벤트 등이 '영화의거리'로 집중돼 영화제 기간 동안 인근 지역이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분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 및 차량통제 대책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상영관이 집약된 '영화의 거리'는 대규모 야외상영, 관객센터, 프로모션 부스, 관객파티 등이 운영되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는 예부터

전주의 주요 영화관이 자리해왔다. 이곳은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린 이후부터는 영화제를 찾는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이 전시되고, 다양한 경관조형물들이 들어서서 등 새로운 명소로 변모했다.

김승수 시장은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준비돼온 것 같다"며 "영화제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빈틈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축제기간 다함께 일하고 힘들더라도 양보하고 격려하면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알루미늄휠 훔친 일당 검거

경영남으로 부품이 떨어지자 다른 공장에서 차량용 알루미늄휠을 훔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7일 김제시 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차량용 알루미늄휠 150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자동차 휠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께 김제시 산업단지 자동차 휠 생산공장에 침입해 창고에 적재된 알루미늄휠 150개를 훔쳐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옮겨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담한 범행은 공장 밖에 설치된 CCTV에 찍혀 꼬리를 잡혔다.

/안진수 기자

편의점 위장취업 금품 훔쳐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께 전주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현금 50만원과 상품권 90만원 등 총 1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이달 초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노리고 인후동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다가 편의점 업주의 꼼꼼한 질문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의회 김윤철 시의원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윤철 전주시의원, '친일 망언' 억울함 호소

"더민주 김윤덕 의원이 총선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이 4·13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김윤덕 국회의원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윤철 시의원은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수차례 방송에서 자신을 '친일망언'의 당사자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윤덕 후보가 공개사과를 거부할 경우 공직자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김 의원은 "김윤덕 후보가 자신을 '친일망언'의 당사자로 지목해 거듭 명예를 실추시킨 배경에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에 근거한 맹목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일

본 가나자와현을 방문, 만찬 자리에서 양국간 교류를 다지는 의미에서 '가나자와 만세'를 삼창하고, 일본 측은 '전주만세' 삼창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미카제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세간의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당시 가나자와 방문 단 일행이었던 박진만 전 시의원, 최인선 전 시의원, 최찬욱 단장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 사실 관계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여론을 호도하고, 현직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윤덕 후보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여러 차례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무차별적인 문자발송을 통해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를 보여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성매매 여성 강간 미수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저녁 9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A(27·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등 2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대와 순찰차 등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임실서 열차 50분간 운행 멈춰

27일 오전 7시20분께 임실군 임실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여수-익산행)가 익산으로 운행 중 전기공급 중단으로 50여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30여명이 환탈을 받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안진수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